연체율 부담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과 손잡고 리스크 관리

중저신용 대출 늘자 연체율 ↑
시중은행比 2~3배 높은 수준

토스뱅크, 광주銀과 공동대출
케이뱅크, 부산銀과 상품 준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반반 대출을 진행하는 공동대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평균 34%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씬파일러) 등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은행을 설립했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목적에 따라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을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10.2%→30%로 늘렸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21.4%→32%, 토스뱅크는 34.9%→44%로 확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한 상태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비중이 늘어날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2020년 0.22%에서 2023년 0.49%로 2배가량 오르더니, 지난해 1분기 0.47%→2분기 0.48%→3분기 0.48%→4분기 0.52%로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가 나지 않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각각 0.88%, 0.99%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평균 0.3%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높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지방은행과 공동대출을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공동대출은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대출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8월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지난해 8월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고객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주은행을 통해 대출심사를 꼼꼼히 하고, 토스뱅크 앱으로 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한 안내와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리스크가 적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자가 기간을 착각할 것에 대비해 원리금을 토스뱅크 앱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연체율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부산은행과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하반기 공동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싶지만, 아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지 못한 상태"라며 "중저신용자 대출이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는데,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공동대출로 내놓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집 맡길게요'… 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58% 증가

가계대출 문턱 높이자 담보대출 ↑
고신용 차주 확보 등 보수적 기조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급전'을 빌린 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축은행을 찾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저축은행이 3억원 이상 취급한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은 142건이었다. 전년 동기(91개) 대비 57.7%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용 비중이 높다.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늘어난 것은 보수적인 경영 기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담보대출 마케팅을 확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을 중단한 데다 중저신용차주 대상 리테일(소매금융)을 확대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챗GPT가 생성한 '아파트 담보대출' 이미지.

지난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행한 저축은행의 상품별 금리 하단은 평균 연 6.53%다. 전년 동기 대비 0.13%포인트(p) 하락했다. 금리 상단은 0.36%p 내린 연 11.45%로 집계됐다. 고신용 차주가 유입된 만큼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저축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8억원 한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80%까지 융통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쪼들릴 경우 1억원 미만을 빌리는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것.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환대출을 제외하면 개인신용대출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차주와 저축은행 모두 부담이 적은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파트담보대출뿐아니라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찾는 고신용 차주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SBI저축은행의 'SBI퍼스트 대출'을 살펴보면 신용점수 900점 초과 차주의 취급 비중은 54.75%로 절반을 넘겼다.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43.05%p 치솟았다. 웰컴저축은행의 '뱅크론'을 찾은 신용점수 800점 이상 차주 비중은 같은 기간 4.09%에서 7.25%p 상승한 11.35%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한동안 고신용차주 확보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PF연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한 푼이라고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과제는 부동산 경·공매 활성화와 부실채권(NPL) 매각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차주에게 대출을 내주기 위해선 적어도 지난 2021년 상반기 수준의 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연체율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

카드 News

신한 메리어트 본보이 플레이트. /신한카드

신한카드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 최대 2.4만 포인트 증정

신한카드는 '메리어트 본보이 신한카드' 이용자에게 최대 2만4000포인트를 추가 증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내달 30일까지 2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7000포인트를 준다. 300만원 이상 이용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포인트는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로 제공한다. 메리어트 본보이 카드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멤버십 카드다. 연 1회 무료 숙박권과 골드 엘리트 멤버십 혜택 등을 지원한다.

롯데카드
軍마트·통신 등 할인 밀리패스·디지로카

롯데카드는 11일 '밀리패스·디지로카' 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국군복지단 군마트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등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실적 50만원을 충족하면 업종별 최대 5000원을 할인한다.

스트리밍 업종에선 월 최대 1500원을 아낄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와 이동통신, 보험료, 스트리밍 업종 할인 혜택은 자동납부 이용 건에만 적용한다. 오는 31일까지 국군복지단 군마트와 국군복지단 체력 단련장에서 밀리패스·디지로카 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할인한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KB국민카드
봄맞이 숙박세일 행사 롯데월드도 30% 할인

KB국민카드는 국내 숙박 상품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KB페이 고객을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정부지원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며, 3만원 숙박 할인권 적용 후 7만원 이상 결제 시 추가 10% 즉시 할인을 적용한다.

오는 16일까지 '스테이그라운드' 무료 숙박권을 총 8명에게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페이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를 3회 더 제공한다.

롯데월드에서 행사 대상 카드를 이용하면 동반 1인 30% 할인 혜택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김정산 기자

DGB금융그룹
iM청춘 FESTA 후원금 전달식

DGB금융그룹은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역에서 더욱 즐거운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iM청춘 FESTA(페스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9일 대구 달서구 소재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는 'iM청춘 페스타'는 ESG 관련 청년 사업가들의 전시·체험과 청년들의 청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경험·학습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인기 가수의 문화공연도 함께 마련됐다.

/안승진 기자

봄 분양시장 본격 개장… 전국 2.4만가구 푼다

포항 강동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부천 '원종지구 휴먼빌' 등 주목

올해 1~2월 숨고르기를 진행한 아파트 분양시장이 3월을 맞이해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다. 여전히 서울에서는 분양 물량이 없지만 전국 각지에서 건설사들의 마수걸이 분양 단지들이 공급될 예정이다.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단지는 전국 23곳에서 2만4415가구다. 1~2월 분양 실적인 7958가구의 3배 안팎에 달하는 규모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마수걸이 분양 단지의 경우 각 건설사의 한해 사업을 알리는 만큼 입지가 우수하고 상징성을 갖춘 곳으로 선정한다"며 "올해는 탄핵정국과 분양시장 침체가 맞물리며 작년에 비해 분양 물량이 적었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 총 999가구 규모다.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마수걸이 분양 단지이면서 동시에 경북 포항시의 첫 분양 단지다. 포항시 최초로 조·중식 서비스(유료)도 예정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건립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올해 마수걸이로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6층,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 규모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에코델타시티 중심 입지를 갖췄다.

일신건영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서 '부천 원종지구 휴먼빌'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다. 일신건영이 올해 내놓는 첫 분양 단지로 부천 원종 공공택지지구 내에 위치하며 원일초, 원종고가 가깝고 오정구청 등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